

보도 일시	2023. 2. 15.(수) 09:00	배포 일시	2023. 2. 15.(수) 09:00
담당 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책임자	과장 윤양수 (044-203-2411)
		담당자	사무관 김성열 (044-203-2422)

## 콘텐츠 기획개발 및 투자수출 확대,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의 선결 조건 논의

-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TF) 콘텐츠반 제2차 회의 개최, 공청회도 함께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박보균)는 2월 15일(수),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TF) 콘텐츠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TF)는 서비스산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설치된 민관합동의 임시조직으로, 콘텐츠반은 5개의 업종별 작업반 중 하나이다.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을 작업반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1급, 민간전문가와 연구기관, 협회·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이 주재하는 콘텐츠반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으로는 홍익대 고정민 교수, 인하대 해주용 교수, 방송영상제작자협회 김태용 회장, (주)엔솔로지스튜디오 최재원 대표,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김지원 이사, 에스케이(SK)브로드밴드 김혁 최고콘텐츠책임자(CCO),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정책연구센터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문화산업연구센터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준우 PM,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재영 기획조정본부장이 함께한다.

서비스산업발전티에프(TF) 콘텐츠반은 지난 1월 17일(화), 제1차 회의를 열어 공정한 콘텐츠 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쟁력 강화 방안, 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의 제안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토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 콘텐츠 기획·개발 및 투자 확대 방안, 수출지원 방안,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통계 고도화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특히 현장 의견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공청회도 함께 진행한다. 공청회에는 웨이브, 씨제이이엔엠(CJ ENM), 필름몬스터, 한국수출입은행, 더핑크퐁컴퍼니, 보뚜슈퍼푸드 등 관계 기업 등이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콘텐츠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비롯해, 콘텐츠 수출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적인 무역적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 이후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회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병극 차관은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콘텐츠 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출하겠다.”라며,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